

지역 소식통

김제 황산면, 노인일자리
간담회로 소통행정 나서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황산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24명)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소감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황산면 노인일자리는 소재지 환경정비를 위한 '어우러터우렁정비단' 활동과 이불 및 의류 등 직접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청결한 생활을 위한 '실버빨래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 중 실버빨래방은 올해만 144건이 추진된 만큼 지역민의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확대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진봉면 지사협
위원 위촉식·반찬 봉사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영)가 27일 신규 임원 위촉 및 관내 저소득층 80세대를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장, 우체국, 농협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사협을 이끌 민간위원장은 최준영, 부위원장은 김두환과 김봉임, 재무에는 유유영 위원이 임명돼 앞으로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 위원들은 남다른 열정으로 회의가 끝난 후 저소득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최준영 민간위원장은 "지난 임기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장을 맡게되어 책임감이 크다"며 "새로 구성된 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감시 강화

김제시,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 감염·중증화 예방 위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관리와 감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신고된 시설은 보건소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어 관리 중 1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합동전담대응팀이 즉각 가동돼 역학조사 및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환자가 집단 발생한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지원 및 KF94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고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시민여러분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 예방 수칙 등을 꼭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 진행 27일 완주군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완주군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제공>

문화치유 프로그램 '완주는 기다립니다' 31일부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관광두레와 협력사업 기획 진행... 10월 4일까지 마을 곳곳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조준모)는 완주군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2024 완주문화치유학교 '완주는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마을 곳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주 문화도시조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완주는 기다립니다'는 완주형 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 완주를 오가는 관계인구와 다양한 문화적 접점을 만들어, 현대의 도시문화를 형성시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에 완주문화도시와 완주군 황미선 관광두레PD 및 주민사업체(반죽, 공동체공간 수작, 조아지구)가 협력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풍류, 위로, 재생, 낯섬이라는 주제에 따라 예비 귀농귀촌인, 직장인, 오도이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총 6회차 프로그램으로 완주군 내 소양, 동진, 삼례에서 진행된다.

31일 소양면 봉강요(위봉길 75-14)에서는 '완주는 풍류입니다'를 주제로 첫 회차가 열린다. 완주로의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체공간 수작이 지역에 정착해 전통주로 자리잡은 숨은골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채주와 시음회로 진행된다.



9월 5일과 7일 양일은 동진읍 두억행 북드림마을(두억길13-12)에서 '완주는 위로입니다'를 주제로, 완주의 농촌마을과 자연이 생업으로 완주를 오가는 직장인들을 환대한다. 한옥과 자연을 느끼며 반죽의 싱싱불 명상과 차담을 함께한다.

9월 6일과 27일 양일은 소양면 조아지구(대흥리, 신지송광로 879-3)에서 '완주는 재생입니다'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오도이촌을 꿈꾸는 주부들을 대상으

로, 완주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한 비건점도 체험 활동 및 활동가들의 완주살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다.

10월 4일 마지막 프로그램은 만경강을 사이에 전주를 마주하고 있는 삼례읍 문화공간 완주온남(하리)에서 이뤄진다. '완주는 낯섬입니다'를 주제로 완주를 기록한 사진 이야기를 듣고 작품 해석을 나누는 전시회와 토크쇼가 열린다. 소영섭·공영환 두 사진작가의 익숙하고도 낯선 시선을 엿볼 수 있으며, 이날 행사는 지역에 관심있는 의지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완주군 황미선 관광두레PD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한마음으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해 '완주는 기다립니다'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완주와 더 깊고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조준모 센터장은 "관계인구는 기존 정주에 한정되던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중요 정책개념으로, 문화적 방식으로 이들을 더욱 환대하고 지역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치유' 사업을 통해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새로보미 축제 봄 조성 환경정화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7일 지역 내 사회단체·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순환의 날 맞이 새로보미 축제 봄 조성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 정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도시

전역에서 쓰레기 수거와 불법 투기된 생활 쓰레기 제거 작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단순히 환경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높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바쁘신 일상 중에도 정화 활동에 동참해준 김제 시민들과 사회단체들 덕분에 시가 한층 깨끗해졌다"며 "자년에 생활리에 마무리된 대한민국 대표 환경 축제인 새로보미 축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지방상수도 '업그레이드'

군·수자원공사 공동 추진... 현대화사업 유수율 90%

완주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완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 유수율 대비 5% 초과한 90.0%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며 완료됐다.

27일 완주군은 최근 한국상수도협회 성과관망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아 전체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시군 지역의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정비해 유수율을 저감시켜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완주군은 환경부 지원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2019년부터 국비 188억 원, 도비 31억 원, 군비 94억 원 총 313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완주군 전체 상수관로를 26개 소별

로 분할해 관리하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대상지인 삼례·봉동읍 일원에 노후된 상수관로 22.3km를 교체 및 누수탐사, 복구 500건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 전인 2018년 51.4%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90.0%로 끌어올려 연간 39만 톤의 누수를 저감하게 됐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완주군 내 배수지 12개소 및 가압장 7개소를 비롯한 여러 수도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관리해 수질사고를 비롯해 대형 누수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대화사업으로 수도 인프라가 크게 향상됐다"며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발주공사 지역업체 수주 비율 96.4%

완주군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의계약 발주공사에서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이 9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 수치는 관내 업체 우선계약 시행 전인 2021년 91.2% 보다 5.2%p가 높은 수치다.

실제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관내 업체 우선계약에 역점을 뒀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계약 기회의 공정성,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총량제'도 도입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반영되 동일업체의 연간 계약금액이 총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에 계약 기회를 제공했다.

동시에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관내 종합·전문 건설업 및 용역업체 등 950여 개 업체 정보가 수록된 '관내 업체 알리미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은 이를 새롭게 보강해 곧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